

# 이스라엘 종전 논의 속 지상전 강화

중부 난민촌으로 지상작전 확대  
저강도 장기전 전환...강은 병행  
이스라엘군, 분리장벽 확대 등  
바이든 미국 행정부 요구 수용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양치기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사이로 양 떼를 몰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전 전술을 고강도 공세에서 저강도 장기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견을 열고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대대 해체를 거의 완료했다"며 "이런 성과를 지키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테러조직 해체에는 마법같은 해결책도, 지름길도 없으며 오직 결연하고 끈질긴 싸움만이 있다"며 "1주일이 걸리든, 수개월이 걸리든 하마스 지도부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성탄절인 25일 리쿠드당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으며 향후 수일간 전투를 심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2만9000명을 넘는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가자지구 지상전에서 고강도 공세를 통한 목표를 이뤘다고 보

고, 저강도 장기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방송 채널12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이스라엘군은 분리 장벽의 가자지구쪽 완충지대를 폭 1km로 확대하고, 이곳에 보병 병력을 주둔시켜 가자지구 주민의 분리 장벽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폭격을 완화하라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막대한 민간인 인명 피해로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제시한 평화 중재안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이 중재안은 전투중단과 이스라엘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 석방, 나아가 전쟁 종식까지 종합적인 방안이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종전안을 검토하는 가운데서도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전쟁을 저강도 장기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와 '강은 투트랙'으로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6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가자지구 지상 작전을 중부의 난민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누세이라트와 마가지, 부레이지 난민촌 주민들도 공습과 포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난민촌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쟁 때 집을 잃은 팔레스타인 실향민과 그 자손들이 거주해온 곳으로, 이번 전쟁 초기 피란길에 오른 북부 주민들이 유입돼 불벼왔다.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군이 북부 지역에 대한 이른바 '작전상 통제'에 가까워진 이후로 남부에 대한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간 100개 이상 표적을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타격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정보기관 외파에 따르면 가자 남부의 이집트 접경지인 라파에서 공습 여러 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간 사람과 물품의 밀입국-밀반입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 공습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인 정보교로를 지낸 마카렐 밀슈타인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10월 7일까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헤르시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지에서 기자회견



이라크 크리스마스 행렬 26일(현지시간) 이라크 에르빌에서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건물 안 행진하고 있다. 이라크는 이슬람교 인구가 대다수지만 소수의 기독교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 /연합뉴스

## '특허 침해'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美정부 "일부 기종 수입금지 확정"  
애플 ITC 결정 불복 법원에 항소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ITC 결정과 관련해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면서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서 ITC가 결정된 대로 이날부터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뢰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

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명령했다. ITC의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 검토를 토대로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USTR의 이번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18일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와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는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됐다. 또 애플은 USTR에서 ITC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항소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이날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이 내년 1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애플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선달그믐 춘제연휴 제외에 뿔난 中민심...당국 "휴무 적극 권장"

"춘제만큼 중요" 민심 불만 고조  
중국인들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만큼 중시하는 음력 선달그믐날(除夕·추시)이 내년 춘제 연휴에서 제외된 데 대한 불만이 커지자 당국이 설 것을 적극 권장하며 진화에 나섰다. 27일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잇달아 발표한 '2024년 춘제 기간 공작(업무) 수행 관련 통지'를 통해 "각 부문과 사업 단위는 직원들이 선달그믐날 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배하라"고 지시했다. 통지는 "춘제 기간 인민대중이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모든 단위가 유급 연차 휴가나 각종 휴가 제도를 이용해 직원들이 선달그믐날 쉬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이 지난 10월 선달그믐날을 춘제 공식 연휴에서 제외된 뒤에도 "모든 사업 단위가 선달그믐날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등 산하 기관들이 선달그믐날 휴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위는 "선달그믐날 쉬도록 한 정책 지침에 부합하고 투자자의 거래 관행, 시장의 요구에 부응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바이토탄스(字體彈動·쪼제타오둥), 텐센트(騰訊·팅신), 메이탄, 왕이, 디디추싱 등 중국의 대형 민영기업들이 선달그믐날 쉬기로 했으며, 직원들이 선달그믐날 쉬는 것을 연차 휴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회사들도 늘고 있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 10월 내년 춘제 연휴를 춘제 당일인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연휴 앞뒤 일요일인 2월 4일과 18일은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예년 7일 연휴보다 하루 더 늘어난 것이지만, 중국인들은 반기기는커녕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연합뉴스

## 올해 미국서 4만2000명 총기에 사망

650건이 난사 사건

올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5일까지 4만2151명을 기록했다고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GVA 집계 따르면 한 번에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65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706명이었다. 올해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GVA가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기 난사 건수는 646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689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중 2만3000여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세 이하 미성년 사망자는 1654명이었다. 미국 보건당국은 총기 폭력에 따른 사망자 급증을 주요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한다. 한편 성탄절을 앞둔 지난 주말 사이에도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다. 지난 23일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죽고 여럿이 다쳤다. /연합뉴스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